

가입기준등 의결 제5차 정책위원회개최

1995년도 제5차 정책위원회가 11월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신규회원가입 기준안 등 3개안건을 처리했다.

정부당국과 회원사등 8명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는 지난 10월4일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신규회원의 가입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그 자격을 상공지원부에 사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규가입업체의 사업분야는 기존 회원사의 추진 사업분야와 상충되지 않도록 유도하되 신규가입시 기존 회원사 부담액의 20-50%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번째 안전인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지원사항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협회에서 각 회원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거나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세번째 안전인 내수용 보수공장 업종지정에 관해서는 현재의 관세법상 항공기 범용부품의 경우 5-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완재기 및 전용장비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역진세를 구조로 되어있어 소재.부품산업 기반이 취약한 국내상황에서는 국산화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항공기산업을 [내수용 보수공장 업종]으로 지정해주도록 재무부에 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 현 관세제도하에서의 업체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완자료를 작성하

여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조합조성안 추진 중형항공기 컨소시움관련

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정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다.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계약서를 작성키 위한 정부당국과 주요기업, 협회등 실무진 회의와 임원급 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다.

신규업종 지정추진 항공기부품 내수용 보수에

항공기 및 동부분품의 제조업을 내수용 보수공장 업종으로 신규지정 받을 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의 관세감면 절차는 상공부의 관세감면대상 확인후 세관에서 관세감면을 받아 통관한 다음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한편 방산품인 경우에는 상공부로 부터 관세감면확인을 받기전에 국방품질관리소에서 소요량증명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후 국방품질관리소가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항공기 산업 수준으로는 사업수행경험 및 기술부족으로 제작가공에 소요되는 물품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고, 국방품질관리소가 발급하는 소요량 증명도 외국 원제작사의 소요량 내용과 차이가 없어 불필요한 절차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항공기 제조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품목수가 방대하여 품목별로 관세감면 신청이나 수입신고 등에 일반 통관절차에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항공기 제조용 원자재는 타 물품에 비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회사차원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는것도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협회에서는 항공기 및 동부분품(부속품 포함) 제조업을 내수용 보수공장업종으로 신규지정 해주도록 11월19일 협회명의로 관계부처에 정식 건의했다.

입주 수요 조사 항공우주공업단지 조성위한

정부는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경남 사천의 진사공업단지를 항공공업단지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진사공업단지 입주의사를 조사중에 있다.

진사공업단지는 경남 공영개발사업단의 관리아래 있으며 1991년 4월 국토이용계획이 고시(건설부고시 제180호)된후 1992년9월 공단 조성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동년 12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삼성항공이 입주해 있다.

1998년 3월까지 조성될 진사공업 단지는 남해 고속도로에서 5.2km, 사천비행장에서 5km, 경전선 철도에서 13km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매우 좋으며 입주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업단지의 총면적은 약260만 평방미터이며, 그중에서 공장용지면적이 165만평방미터,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가 91만평방미터이다.

11월26일까지 한국로스트웍스공업, 동서항공부품, 두원중공업, 서울차체공업, 서울차륜공업, 수성공업사, 재형금형정공 등 7개사가 입주약사를 밝혔다.

항공우주공업단지 입주 희망회사

회 사	주생산품
로스트웍스공업	엔진부품
동서항공부품	항공기부품
두원중공업	항공기용 장비품
서울차체공업	동체및 의자
서울차륜공업	항공기용 휠
수성공업사	기체부품, 치공구
재형금형정공	금형

구체내용해설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세미나 개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국내 컨소시엄 구성방식 및 사업추진계획 등을 공식 발표하는 세미나가 11월24일 협회가 입주해 있는 증권감독원빌딩의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총 110명이 참석한 동 세미나는 협회 광병구 상근부회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상공자원부 이원걸 항공우주공업과장의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추진경위와 체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두식 상공자원부 자문변호사의 중형항공기 컨소시엄을 민법상 조합형태로 하는데 따른 법률적 의미 순으로 발표되었다.

휴식후 본 사업의 주관회사인 삼성항공의 변동선 이사의 중형항공기 사업계획 설명과 동사의 이중배과장의 사업참여신청요구서(RFP)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폐회되었다.

상호협력 협의 대표단 14명 방미후 귀국 한미 Subgroup회의 미국서 개최

광병구 협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미산업기술협력 항공우주분야 대표단이 11월 27일 출국하여 12월5일 귀국했다. 10개사의 대표로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측 대표와 한미 항공우주산업 협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LA지역과 시애틀지역에 위치한 보잉사등 관련업체를 방문하고 산업 협력을 타진했다.

이번 한·미 산업협력 subgroup 회의에 참석한 국내업체는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한라중공업, 금성정밀, 동양강철, 두원중공업, 한화기계등 8개 회사이며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배석했다.

총 250대 보유 항공기 보유현황 조사

협회에서는 교통부와 관련업체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총 항공기 보유대수는 11월30일 현재 250대이며 그중에서 고정익 항공기가 158대(63.2%), 회전익 항공기가 89대(35.6%), 활공기를 2대, 비행선을 1대 보유하고 있다.

생기연회의 참석

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 11월 16, 17양일간 개최한 첨단기술산업지원의 항공분과위원회에 업계를 대표하여 우리협회의 김영갑 기획담당이사가 참석했다.

